

2024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4.6.25.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5	1	12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김영진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4	-	1	11	-	11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1	-	-	11

다. 전월(5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지하상가 관련 보도> 가해자가 옆 반으로 분리되어 2차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옆반으로 분리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 고민 필요	상인들이 왜 농성을 하는지 대전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긴 했지만 입장이 있었는 데 후속 보도를 왜 못했는지 고민하겠음 <24. 6월 조치>	'24.5월
보도	<중학생 학교 폭력 보도> 가해자가 옆 반으로 분리되어 2차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옆반으로 분리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었음	제보가 아닌 소문을 통해 교육청에 팩트 확인후 사실만 단신 처리한 내용인데 유사한 사례 발생시 심도있게 보도하겠음. <24. 6월 조치>	'24.5월
보도	<코레일 남성 육아휴직 보도> 남성비율이 85.8% 치우쳐 있는 기관에서 남성이 여성 육아휴직자를 알렸다는 보도는 통계의 착시임	통계의 오류를 간파하지 못한 보도의 결정적인 사례라고 생각함. 충실성을 높여 다시 보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음 <24. 6월 조치>	'24.5월
보도	<노동절 관련 보도> 노동절 보도를 집회 사실만 보도했는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다뤄주었으면 함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특종처럼 항상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중심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음 <24. 6월 조치>	'24.5월
보도	<5.18 관련 보도> 우리 지역에서도 5.18관련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보도가 없어서 아쉬웠음.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자료 전해 주시면 민주화 운동 역사 기록이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해서 보도하겠음 <24. 6월 조치>	'24.5월
교양	<지역 이슈 심층분석 채널 필요> 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소통과 논의가 필요한 채널을 마련해 자세하게 다뤘으면 좋겠음	7월부터 지난 1년간 중단된 토론프로그램을 재개할 예정인데 그를 통해 심층적인 대안을 모색하겠음 <24. 7월 조치>	'24.5월
교양	<인생내컷> 한 사람을 장시간 다루는 것 보다는 15분정도 짧게 나눠서 속도감 있게 구성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	내용에 따라 호흡이 짧고 길 수 있는데 사람에게 따라 그 분량을 조절해서 쇼츠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음 <24. 6월 조치>	'24.5월
교양	<테마기행 길 - 인터뷰 설정> 부여군수가 토마토 따는 장면을 설정했는데 그냥 홍보대사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설정도 괜찮을 것 같음	제작진에게 전달해서 향후 더 자연스러운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24. 6월 조치>	'24.5월
교양	<건강플러스 - 쇼츠 구성>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전문가의 의학지식에 대한 팩트를 접할 수 있도록 쇼츠를 지속적으로 구성해주었으면 함	건강플러스는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뉴미디어팀에서 10분 단위로 재가공을 잘 하고 있는데 향후 자루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음 <24. 6월 조치>	'24.5월
교양	<시시각각 구성> 예전 방식처럼 대화나 토론의 방식이 아닌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았으면 함	예전처럼 진부하거나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부담은 있지만 의견을 듣고 업그레이드해서 구성하겠음 <24. 6월 조치>	'24.5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4년 6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05.01~26.0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05.01~26.0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05.01~26.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뉴스 자막 실수> 날씨를 보도하면서 아나운서는 온도를 29.6도라고 하는데 자막에는 29.7도라고 표기됨.	회의록 첨부	○		
보도	<국회 해결 지역 현안 문제 보도>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문제로 공주대 의대 신설 문제 보도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는지?	회의록 첨부	○		
보도	<불법 촬영 피해 보도> 성희롱 성폭력 보도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실요사를 다르게 설정하고 용어 선택도 주의를 기울이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미성년자 성 비위 사건 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적절한 보도를 해주시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자체 단체장 평가 보도> 6월이 지자체장의 임기 절반이 지난시점이나 단체장들의 구체적인 평가 보도가 있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보도> 상인회를 중심으로 반대 보도와 주로 집회나 규탄 관련 보도를 했는데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아쉬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오늘M -이음 코너> 창사 60주년 기념 특집으로 제작한 3편의 이음 코너를 잘 봤는데 회마다 그 취지를 잘 살리고 달 살리는 편차가 있어 보였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오늘M 코너 구성 변경 건> 수요일에 시사 코너가 있었는데 어떻게 변경된 건지 시사가 부족하고 문화나 사람소개가 풍성해진 느낌.	회의록 첨부	○		
교양	<건강플러스> 아이를 진료했던 병원 교수가 직접 출연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지속적으로 가족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인생내컷 출연자 관련>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후위기 및 환경과 관련 분야에서 노력하는 분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의견)	<시청자게시판 의견> 물범 기사가 지역뉴스에서 보도된 뒤 곧이어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나갔는데 조율이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2024년 6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손병우 위원장, 김영진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6명)
진종재 사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지금부터 6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총 10분 중에 6분이 참석하시는데 김영진 위원님 시간이 늦은 관계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6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올라온 의견은 5건이고요. 프로그램 내용 관련한 불만 2건,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 1건, 기타 문의 및 요청이 2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일 위원

시청자 의견이 날카로워서 좋은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서울 본사와 대전MBC가 법인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조직적으로는 잘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세 번째 의견 같은 경우 “서울 편성과 관련해서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대전MBC나 MBC 본사나 다 같은 MBC로 느끼고, 대전에 살아서 대전에 얘기를 했는데 본사 MBC에 문의를 하라는 답변이 나오면 불성실한 답변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이 있으면 여기서 본사의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될 수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이은표 경영국장

무미건조하게 들리시긴 할 텐데요. 본사에서 릴레이와 로컬 편성하는 띠를 따로 줍니다. 자체적으로 로컬이 허락된 부분만 편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밤 시간대에는 이 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하려면 별도로 할애 요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인 게 아닌 정규 편성되는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권유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편성 한 분의 개

인 의견으로 전달을 해도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밤 시간에 뉴스에 요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기에 따라서는 좀 짜늘하게 보이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섬교 위원

서산 물범 소식 뉴스는 제가 직접 봤는데요. 대전MBC가 끝나고 나서 바로 중앙MBC가 송출된 상황이거든요. 시청자의견을 보면 서울 방송이 아니라 대전MBC측에서 서산 물범 얘기를 앞쪽으로 뺐으면 겹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답글을 읽어보니까 사건 사고 기사 등으로 서울의 뉴스 순서가 긴급하게 편성되면서 맨 뒤로 편성됐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시청자 입장에서 편성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지방MBC와 서울MBC가 조율이 전혀 없는 부분인지, 같은 기사라면 이 시간대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답변이 제가 읽기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물범 기사가 저희 로컬 방송하는 시간에 서울에서는 전국으로 송출되는 걸로 큐시트 상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기사가 뛰어들면서 물범 기사가 서울에서 맨 마지막 기사로 미뤄지게 된 거고, 요즘에 서울에서 중간 광고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서울 본사 뉴스를 한 꼭지는 받고 끝내거든요. 그 꼭지가 물범 기사로 서울에서 편성 변경이 되었고, 배치가 그렇게 바뀌면서 공교롭게 두 번 연속해서 나가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이섬교 위원

오버랩 된 걸 몇 번을 봤는데 이처럼 간극이 없이 바로 똑같이 나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임세혁 편성국장

저희가 뉴스를 진행할 때는 본사에서 당초에 저희 로컬 뉴스 나갈 시간에 그쪽에 배치를 시켰다가 갑자기 진행하면서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응하기에 어쩔 수 없이 송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니다.

이섬교 위원

그래서 전 재탕이나 성의의 유무의 의미가 아니라 조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 같아요.

임세혁 편성국장

저희도 서울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큐시트대로 운행해 달라 그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또 급하게 큰 뉴스가 생기면 편성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더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네 그럼 6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일이 있으셔서 따로 시간이 내시는 게 쉽지 않은데 시간을 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뜨거운 의견들 주셨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회사 상황을 설명드리면 몇 년 만에 있는 재허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말까지 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9월이 되면 창사 60주년이 되는데 그때 방송들과 각종 행사 준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듣고 보니 대전MBC가 특히 올해 그리고 이번 달 더욱 바쁜 기간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전MBC는 계속해서 창사 60주년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좋은 뜻도 담긴 계획들이 엮보이는 것 같아서 올해 창사 60주년 관련해서 대전MBC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을지 자못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6월 시청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으로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6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

6월 한 달 동안 MBC시청자위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웬만하면 MBC를, 특히 지역 방송할 때는 시청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세혁 편성국장님이 출연부터 진행하시는 뉴스도 몇 차례 보기도 했는데요. 먼저 <건강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도 6월에 진료를 받던 병원의 교수님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설명해 주신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의 가족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방송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 지역 주요 사안들에 대한 보도가 단순 보도에 그치지 않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탄탄해서 좋게 봤습니다. 먼저 6월 초순경에 나왔던 석탄화력 폐지지원 특별법 관련해서 보도가 두 차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환경 문제나 지역 이기주의 문제로서 끝나지 않고 석탄 화력이 폐지되었을 때 지역 종사 노동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후에 충남 노동 전환 특위 출범 소식까지 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석탄 화력의 폐지가 우리 환경을 위해서라고 단순히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던 점에서 좋게 봤고요.

대전시 민선 8기 평가와 관련된 보도 자료가 많은 언론사에 배포가 되고 대전MBC에서도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단순히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틀 뒤에 “민선 8기 반환점... 경제도시 대전 어디까지?”라는 보도를 통해서 MBC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서 각종 내용에 대해서 보내기도 했고, 단순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던 부분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R&D 예산 복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번에 대전 민생 직결 R&D 예산 복원이라는 보도를 내보내셨죠. 거기에서 실제 R&D 출연연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대전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밀접한 도시인만큼 시민들도 과학기술계에 가족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R&D 예산의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인데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R&D 예산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질 조례가 충남에서 굉장히 이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슈를 대전 MBC가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는 깊이 있게 보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대전MBC에서는 충남교육청의 입장뿐만 아니라 교직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같이 균형을 맞춰서 내보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후속 보도도 두 차례 있었죠. 그렇게 조례 입법이 중지되고 그리고 입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청원이 이어지는 과정까지도 보도를 해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칫 노동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조례의 추진에 대전MBC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소수자 약자 대변 관련된 보도도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모여서 2시간가량 오체투지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많은 언론사들이 단순히 이 장면만 단신으로 내보내는 데 그쳤다면, 대전MBC는 참가했던 장애인 부모들이나 발달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송출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이 돋보였고요.

어제 故변희수 하사 안장식이 대전 현충원에서 있었는데요. 저도 현충원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MBC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현충원 정문에서 안장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죠. 다른 언론사들은 갈 등의 상황에만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대전MBC는 변화사의 이야기와 변화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내보냈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방송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5.18이 있었더라면 6월에는 6월 항쟁이 있었는데 6월 항쟁 관련해서도 보도를 놓치지 않고 단순히 전국적인 6월 항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산 증인을 같이 출연시킴으로써 그런 지역 언론다운 보도를 탄탄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는 이런 식으로 대체로 좋게 보이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창립 60주년 얘기가 나왔었는데 창립 60주년 특별기획 '이음'이라는 것이 유튜브로는 게재되고 있던데 방송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김지훈 보도국장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관련해서 잠깐 말씀 올리면 '이음'은 저희가 3편정도 제작을 해서 일요일 낮 시간대 <오늘M> 특별판에 삽입을 해서 송출을 이미 했고요. 유튜브에 탑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성일 위원

저도 그 세 편을 봤었는데 첫 번째는 대동 하늘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 노력 이런 부분이 담겨 있었고, 두 번째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해서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지금 트로트 가수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업가를 다루기도 했고, 세 번째에서 서구청 이야기가 방송이 됐었는데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많은 방송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지자체의 홍보를 하면서 그 홍보 속에서 지자체장의 홍보도 해나가고 자신의 PR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구청 이야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구청에 대한 홍보라기보다 서구청장 홍보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시청을 하면서 불편했습니다. 사실 <오늘M>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고 사실 많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공주시장이 스튜디오에 나오기도 했고 유구 수국 축제가 나왔었는데요. 그 축제의 홍보가 메인으로 잡혀 있고 시장이 나와서 이에 대한 홍보를 함께 하면서 더불어서 자신이 해나가고 있는 지금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서구청 이야기 같은 경우는 서구의 abcdef 모든 것들이 다 서구청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좋게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서구청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됐을 것인데 제작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사람에 대한 홍보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시청자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6월간 방영된 대전MBC 프로그램 그리고 보도에 대한 제 의견이었고요. 7월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풍부하고 알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섬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섬교 위원

시청자 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집중을 해서 본 것이 6월에는 <뉴스데스크>와 <인생내컷>인데 2주 분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데스크는 정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처럼 6월 4일 가로림만 물범과 함께 그날 자막 실수하신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나운서 분께서 온도를 얘기하시는데 자막과 달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막에는 29.7도였는데 아나운서께서 29.6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뉴스 보도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주 옥에 티 하나입니다.

6월 17일자 뉴스는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 회피를 하고 있는데, 젊은 MZ세대를 위한 공무원 저 연차 특별 휴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저 연차 공무원들을 어떻게 근속 시킬 수 있는지 조례 개정과 특별 휴가에 관한 부분들을 MBC가 보도했습니다. 공무원은 우리 시대 때 너무 좋았던 직업이었는데, 지금 공무원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 누리집 개방형 공무원 5급 다시 채용에 대한 문제를 같이 짚어주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짚어주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달 <인생내컷> 2주의 프로그램이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대전MBC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으나 충주의 꿀목 살리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거든요. 6월 20일 그리고 6월 13일은 꿀벌에 대한 정년기 수의사 소장님 얘기 들었었어요. 꿀벌이 사라지고 자연 환경이 없어지면 향후 앞 세대에 대한 위험성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5월 20일이 환경의 날이고 그 때 많은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다시 한국에 두 번째에 안 게시는 꿀벌 수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 주시면서 환경 문제를 같이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희 아이들과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6월 13일 꿀벌 프로그램을 언급하여 대전MBC 꿀벌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하나 있는데요. 6월 21일 뉴스에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될 지역 현안 문제로 공주대 의대 얘기를 살짝 길게 올려놓은 부분이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생겨서 불편한

가운데 공주대 의대 신설 문제가 지역 국립대에 의대가 없기 때문에 충남 내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게 이 시기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편으로는 국가와 다르게 MBC가 조금 주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었어요.

이 시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의대 증원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국회가 해결해야 될 지역 현안으로 공주대 의대 신설 문제가 제기 되는 게 맞는지 약간 퀘스천이 돼서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약간 불편해서 시기가 달랐으면 조금 더 잘 다가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은 제가 너무 즐겁게 봤고 좋은 내용 많아서 널리널리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성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미화 위원

이성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인류 미래를 위한 꿀벌 치료 정년기 수의사 편을 저도 봤는데 사실 지금 기후 위기 환경에 관심 갖자 해서 KBS 같은 경우는 짧은 광고로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도 기후위기 환경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인생내컷>에 보여주신다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관심 갖는 분들, 노력하는 분들의 노력들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더 조명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대전 지역에 불법 촬영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5월 23일 뉴스 김성국 기자님 뉴스였어요. 그 제목이 “수사 도중 또 상습 불법 촬영 고교생 구속...”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연출이 어떻게 됐냐면, 아마 서부경찰서 관할하는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100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장면에서 핸드폰을 직접 화장실 위로 쏘 올리는 장면이 노출이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장면에서 피해자가 그걸 보고 저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있었던 장면하고 너무 묘사가 같은데다가 핸드폰 색깔마저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직접 전해 듣고 저도 그 뉴스를 유심히 보니까 그 이후에 보도된 거는 사실 직접 핸드폰을 위로 보이거나 이리저리 않고 손으로 화장실 유리창과 아래 틈을 이용해서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5월 24일 그 뉴스에는 남자 고등학생이 불법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걸어 들어가는 남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하반신 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화장실로 막 들어가는 뒷모습이 노출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100여 명의 피해자가 대전 그 상가

근처에 있었다면 그 뉴스를 보고 엄청 섬뜩하고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희롱 성폭력 보도 기준 가이드라인에 보면 사실묘사를 할 때 피해자들의 충격을 감안해서 직접적인 노출이나 묘사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뒤에도 불법 촬영 피해가 대전 지역 대학교에서 있었다고 하면서 6월 5일 뉴스에서 나왔어요. 대학교에서 원래 같은 건물에서 불법 촬영 피해가 있었는데 또 있었다고 해서 대학생 인터뷰도 따고 했는데, 이때 같은 건물에서 “불법 촬영 발각”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발각’이라는 말이 그걸로 인해서 깜짝 놀랐다, 심각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발각’이라는 말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용어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각’이라는 뜻을 찾아봤어요. 뒤집히다, 뒤집어지다, 갑작스럽게 소란해지거나 야단스러워지다 이런 의미인데 그 대학교에서는 조치한 게 CCTV를 재배치하고 옮겨 달았지만 전에 가해자를 못 찾다가 두 번째는 또 찾았다고 하고... 여학생들이나 대전 지역에 사실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피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여자 선생님 화장실에 실제로 학생이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그런 피해들을 저희는 많이 알고 있지만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을 때 여성분들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에 대한 피해에 노출된 이후에는 화장실을 외부에서는 가지 못하고 일부러 집에 와서 가고, 낮선 곳에서는 화장실 가는 자체를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미에서 다른 용어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기에 불법 촬영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후속 보도를 계속하면서 어떤 부분을 대처해야 되는지,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속 뉴스를 계속 다뤄준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성교 위원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대전에서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서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문은선 기자님이 6월 12일에 7시 뉴스로 보도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교육청에 직접 가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자문위원회나 회의를 통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뉴스가 보도됐을 때 사람들이 저 가해자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성년 피해자이다 보니까 피해자가 학교에서 2차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한 걸 알게 됐어요.

이 부분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부적절한 교제라는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궁박한 상태라면 이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성립할 수도 있는 심각한 건일 수도 있는데 학생 나이는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기사가 나왔을 때 피해자가 오히려 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면 ‘외부에 그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소문을 내지 말아라’, ‘선생님도 알아

도 외부에 얘기하지 마라' 하고 비밀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보도되더라도 징계를 정확하게 해야 하고... 정말 이 부분은 너무나 심각한 피해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학생이 선생님을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미성년자인 학생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면 징계와 조치 이후에 신중한 고민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MBC에서는 그냥 대전에서 있는 교사다. 근데 그 교사가 체육 교사다. 이렇게 나왔고, 매체에 보도되지 않는 뉴스에서는 대전 40대 체육교사 이렇게만 쳐도 10여 개 이상 뉴스가 짝 뜨는데 대전MBC에서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조합을 하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교육청 출입 기자님은 아마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텐데 피해자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해서 최소한의 내용을 올린 것지만 다른 기자들은 자극성 있는 기사들도 많이 쏟아냈어요. 사랑이나 뭐나 막 이렇게... 대전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보도할 때 그런 관점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미성년이 피해자인지를 알게 됐다면 혹시 미성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여럿 일수록 부모님한테 안 알린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수사를 못해요.

보호자에게 알려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어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학교에 다 알려지고 보통 직위 해제되면 그 교사가 학교를 안 나오니까 몇몇 다리만 건너면 어느 학교 누구 가해자인지도 측정할 수 있기가 되게 쉬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할 때 어떤 부분이 더 적절할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뉴스는 전반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시기나 사회적 이슈에 맞춰서 보도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체가 중립이기보다는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주셨다고 전반적인 생각이 들었고 오늘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수성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이 언론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 촬영이 많을까 지금 시기만 그런가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런가라는 생각만 들었다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식 자체가 그런 것들을 재미로 보는 것이나 청소년이 이렇게 가는 것 자체를 어떻게 막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남기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내컷>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꿀벌과 환경을 같이 엮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이것들을 계속 발굴하여 길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짧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도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긴 서사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지루해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양쪽의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이 지금 <인생 내컷>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M>은 전에 수요일에 시사 코너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시사 내용이 사라진 듯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는 하나, 문화나 지역의 내용이나 사람들의 소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풍성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을 7월에 새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달에 하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6월 11일이었을까요? 중구청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짧게 보도를 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고 1인 가구라든가 고립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방안을 아주 짧게 하셨지만 여유가 된다면 대전시의 그런 내용들을 이슈화해서 특집까지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하는 내용을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저는 보도부문을 봤는데요. 6월이 각 지자체장의 임기 절반을 넘긴 시점인 만큼 지자체장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들이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개괄적인 얘기들만 있고,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역화폐 축소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혜택이 줄었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 얘기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성구로 이전한 이슈의 경우에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관련 이슈들이 집회나 규탄과 같은 내용으로 너무 반복 보도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이슈였던 만큼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가 되었다면 상인회가 아닌 다른 시민들도 더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새로 오신 시청자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심도 있게 해주셔서 알찬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음'을 봤는데요. 이음 세 편 봤는데 1편은 2009년도에 대전MBC가 나서서 마을 재생이랄까 마을의 역사 만들기랄까 이런 시도를 해 주

신 사례를 15년 후에 다시 가서 어떻게 뜻이 이어지고 있는 가 잘 살아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지역의 기업인이면서 트로트라는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젊은 학생들 장학사업 후원도 해주시는 좋은 기업인의 전형이랄까 하는 분을 소개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서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대전MBC의 의미도 있고 이음이라고 하는 뜻도 긴 시간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게 시간성과 그 사업의 의미 등 여러 가지 점에서 그 뜻을 잘 살려낸 회라고 생각이 났는데요.

두 번째 키다리 아저씨 기업인 얘기는 <인생내컷>하고 큰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구청장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다른 구청장들은 이만큼 못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칭찬해 주면 다른 관계되는 요소들은 서운해질 수 있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서구청에서 그렇게 별이는 일들이 이음이라고 하는 취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게 부각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음’이 창사60주년 기념 특집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뜻이 회마다 취지를 살리고 좀 덜 살리고 하는 거에 대한 편차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자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대전MBC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먼저 이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음의 시작은 보도국이나 편성국이 아닌 전략기획실의 전략콘텐츠기획팀에서 창사60주년을 맞아 시범적으로 파일럿 형태로 만들어본 15분짜리 미니 다큐입니다. 당초의 제작 취지는 지역에 있는 선한 영향력이나 공직의 롤모델을 지역에 소개하고 전파하자는 취지로 ‘이음’이라는 타이틀이 정해졌고요.

총 4편을 제작했습니다. 하늘 동네 15년, 키다리 아저씨의 봉사, 서구청 이야기, 네 번째는 아직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황정아와 박정현 의원님... 지역 여성 국회의원이 67년 만에 지역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이야기들을 담았고, 소재의 에피소드들을 담다 보니까 때로는 이음의 취지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콘텐츠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작을 제가 맡았었는데 공교롭게 보도국장으로 전보발령 되면서 중단된 상태고, 뉴스 쪽에서 창사 60주년 타이틀로 지역 내 선한 영향력 위주를 발굴해서 소개해 드리는 취지로 한 번 이어갈까 검토 중입니다.

이섭교 위원님 말씀 주셨던 자막의 답변 오타 그건 아나운서께서 리딩하신 게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막 실수가 있었고, 그걸 저희가 인지해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 관련해서 발각 용어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 관련해서 저희가 못 짚었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 주셔서 범죄 장면에 대한 재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할 테고,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전교육청 산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 관련 비위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솔직히 타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너무 옐로저널리즘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신랄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저희 담당 기자나 저희 취재편집부장이나 기자들의 의견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아동 학대 측면도 있는 거고 학교 내에서 왕따나 따돌림의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단순한 팩트 위주로 전달하고 있고 누락하기에는 좀 그런 사안이니까 스트레이트 위주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엣그제 관련 교사가 직위 해제도 되었고, 경찰 수사도 이루어질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인해서 추적 보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 관련해서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불법 촬영 이슈는 저희 사건 팀에서 이슈 메이킹을 해나간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도가 서울 중앙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심지어 이원석 검찰총장도 중대 범죄로 접근해라 그리고 재판에 기소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라 할 정도로 엄정 대응을 이끌어냈다고 저희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화면 구성의 문제, 그리고 2차 가해 여부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불법 촬영 사건 보도가 또 있는데, 향후에도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 제보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도할 때 예의주시하면서 조심해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일 위원님 말씀 주신 석탄 화력 R&D 예산 복구 이걸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지역 현안 법안은 무엇인가? 21대 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나가는 기획 보도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주대 의대 신설도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 이슈와는 별도로 예전부터 지역 의료가 너무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역에 국립대 의대가 한 곳도 없고 전국의 의사가 신입생이 3천 명인데 충남 같은 경우는 130명 정도밖에 안 뽑거든요. 그래서 1천 명당 의사 수도 1.5명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역 의대에 대한 충남 지역 내 여론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제에 이번 국회에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 공주대 쪽에 의대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8기 2년 결산과 관련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단체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보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역화폐 축소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 변화 등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성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전 원도심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대전 중구 등 자치단체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등을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소진공 이전에 따른 원도심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뉴스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께서 <건강플러스>를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어주길 당부하셨습니다. 아마 지난번 보신 거는 소화기관에 관한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족 건강을 지키는 프로그램으로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교 위원님께서 <인생내컷> 6월 13일에 방송된 꿀벌 수의사 그리고 6월 21일 방송된 충주 관아골 청년협동조합 말씀하셨습니다. 꿀벌 수의사는 대전MBC가 제작했고 충주 관아골 청년은 MBC충북이 제작을 한 겁니다. 사실 대전 충남 지역도 충주의 관아골처럼 공주의 제민천 청년 마을 쪽 퍼즐 랩에 권오상 대표로 유명한 분이 있긴 있는데, 충북에서는 아마 관아골의 박진영 대표라고 그 날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사실 또 공주의 제민천 청년들은 방송으로 많이 다뤄왔던 아이템들이어서 사실 <인생내컷>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다행히 충북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장면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꿀벌 수의사 정년기 원장님을 통해서 환경이라든지 생물을 보호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이분의 인생 자체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귀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해온 삶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고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서산 석림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나가시는데 그 분이 전국 최초로 자연 미술 수업을 하시는 분이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길 예정입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 <오늘M> 이슈의 현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신입 프로듀서가 2명이 들어오고 얼마 안 됐을 때 PD들이 야심차게, 신선하게 또 저돌적으로 취재해서 꼭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신입 PD들도 경력이 붙어서 한 명은 창사 특집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PD로 보냈고 한 명은 <오늘M> 수요일 총괄 PD로 가는 바람에 <이슈&현장>이 당분간은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추가로 또 질의 있으시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진종재 사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바쁘신 가운데서도 6월에도 아주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 또 보도를 많이 내보내셨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 시청자위원님들께서도 이 6월이 되면서 다시 뭔가 활력을 충전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MBC가 올해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종재 사장

지난달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정성일 위원님께서도 좋게 봐주신 걸로 고평을 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미화 위원님의 날카로움은 실제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거나 참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뜻 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항상 위원회는 끝나면서 어쨌든 뭔가 소득이 있는 것 같은...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목소리를 듣는 시간 안에서 평가를 제 스스로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 한 달 지금 벌써부터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면서 7월 말에 다시 또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6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